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노동시장 안정세... 낮은 미 신규 실업청구 건
- Bloomberg: 리치몬드 연준 총재 “연준의 정책 대응은 전쟁 기간에 좌우”

[중동 위기]

- TheEconomist: 트럼프는 왜 이란에 뛰어들었나?

[무역 전쟁]

- WSJ: 미 국제무역법원, 정부에 “1천3백억 불 이상 관세 환급 시작하라” 명령
- WSJ: 미 국제무역법원, 환불 판결의 중심에 서

[중국 경제]

- WSJ: 중국, 저 경제성장 시대로 들어선다

[에너지]

- Bloomberg: 이란 전쟁 에너지 공급망 문제로 오일가 상승
- Bloomberg: 신차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 전기차 충전기 증가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미 대학 졸업 후 연봉 낮은 전공 리스트
- WSJ: Target, 정상화 전략으로 매출 투자 확대

[미국 경제]

Bloomberg: US Jobless Claims Stay Low in Sign of Steady Labor Market

미 노동시장 안정세... 낮은 미 신규 실업청구 건

- 지난주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청자가 안정세를 보여 노동시장도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끝나는 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치도 비슷한 규모인 21만 5천이었다.
- 전반적으로 최근 실업청구 건수는 지난해 가장 낮았던 수치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는 실업률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해고율도 낮다는 의미다.
- 한편 고용 컨설팅 회사인 Challenger, Gray & Christmas에 따르면 2월에는 일자리 축소 자가 둔화했다. 그리고 연방 노동국에 따르면 4분기에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향상되었다.

US Initial Jobless Claims Held at a Low Level Last Week

Recurring applications rose by the most so far this year to 1.87 million



기사

Bloomberg: Barkin Says Fed Response to War Depends on Length of Shock

리치몬드 연준 총재 “연준의 정책 대응은 전쟁 기간에 좌우”

- 리치몬드 연준 총재 Tom Barkin 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오랫동안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연준의 정책 대응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물론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인플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중동 전쟁 여파보다는 장기적인 여파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준 다음번 정례 모임은 이달 17일부터 양일간인데 올해 두 번째로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다. 금리는 12월에 2.9%로 연준 목표치 2%보다는 거의 1% 높은 상태다.

기사

[중동 위기]

TheEconomist: Why Donald Trump gambled in Iran

트럼프는 왜 이란에 뛰어들었나?

- 이란에 복수해 스스로 역사에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1979년, 미 국민들이 444일간 이란의 테헤란 미 대사관에 인질로 잡혀있던 수모 때문이다.
- 그리고 이란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약해진 틈을 타 공격의 기회를 잡았는데 지난해 전쟁과 올해 1월 시위로 불안정한 이란 국내 정치를 이용한 것이다.
- 트럼프의 이번 공격은 무질서와 폭력을 유발해 몇 배의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미 정부도 통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역 전쟁]

WSJ: Judge Orders Government to Begin Refunding More Than \$130 Billion in Tariffs**미 국제무역법원, 정부에 “1천3백억 불 이상 관세 환급 시작하라” 명령**

- 맨해튼에 있는 국제무역법원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로 판정한 1천3백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관세를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방 법무부가 판결 집행을 잠정 중단해 달라는 요청은 기각됐다.
- 이미 2,000건 이상의 기업 소송이 환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제기됐는데, 이전에 행정부 측 변호사들은 환급을 약속한 바 있다.
- 판사는 환급 절차를 시작하라는 서면 명령을 내리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주 금요일 심리를 할 예정이다.

WSJ: The Tiny Court at the Center of a Massive Scramble to Get Tariff Money Back**미 국제무역법원, 환불 판결의 중심에 서**

- 미국내 국제무역법원은 연방 대법원이 무효로 판정한 1,3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 평소 잘 알려지지 않은 국제무역법원이지만, 이번에는 환급을 요구하는 2,000건 이상의 기업 소송을 심리하게 된다. 물론 모든 사건을 일일이 개별로 심의하기 보다는 절차를 정리하고 공통 기준에 따라 환급 방식을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간단히 말해 품목 적용이나 이자 계산 등 집행 가이드라인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 한편 비슷한 환급 절차는 약 30년 전 항만 유지세(Harbor Maintenance Tax) 환급 때도 있었으며, 이번 사안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된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

WSJ: China Signals New Era of Slower Economic Growth**중국, 저 경제성장 시대로 들어선다**

- 중국은 2026년 GDP 성장을 목표를 4.5~5%로 설정했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 이같은 낮은 목표는 국내 소비 둔화, 투자 위축,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경제 성장이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리창 총리는 2026년 최우선 정책 목표를 내수 확대에 지정하고, 새로운 금융 지원 수단도 발표했다.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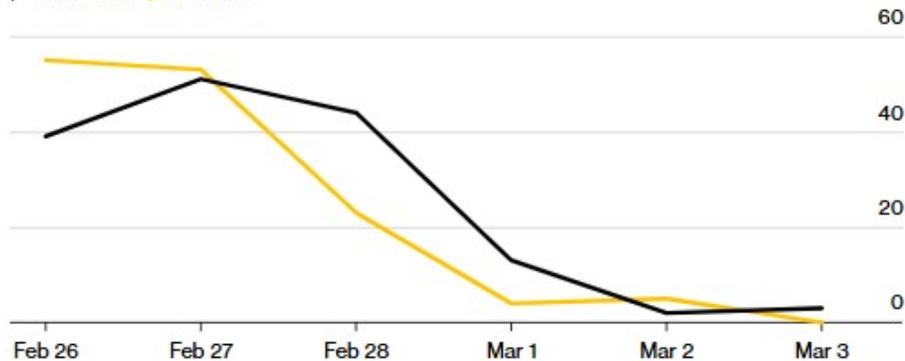
Bloomberg: Oil Rises as Iran War Piles Further Stress on Energy Supplies**이란 전쟁 에너지 공급망 문제로 오일가 상승**

- 중동 위기가 계속되면서 유가가 상승했다.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은 연료를 절감하려는 상황이고 이란과 미국·이스라엘은 충돌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약 84달러, 서부 텍사스 중질류는 최고 78달러까지 상승했다.
- 중국은 주요 정유사들에 디젤·휘발유 수출 중단을 지시했고, 일본 정유사들은 정부에 전략비축유 방출을 요청했으며, 인도의 한 정유사는 제품 수출 중단을 고객에게 통보했다.

Hormuz Traffic

Vessel movements through the Strait have come to a near total halt

Outbound Inbound



Source: Vessel tracking data compiled by Bloomberg

Note: Daily count of visible commercial ships based on AIS signals. Total transits in both directions.

Bloomberg: Why EV Chargers Are Booming Despite Slumping New Car Sales**신차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 전기차 충전기 증가**

- 전기차 충전 회사인 ChargePoint Holdings 은 2025년 4분기 매출이 7% 증가했다.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0% 줄었음에도 성장했다.
- EVgo 등 충전 회사들은 충전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으며, EVgo는 올해 미국에 최대 1천6백50개의 신규 충전 슬롯을 설치할 계획이다.
- 미국 내 충전 케이블 수도 늘고 있다. 작년에 충전 네트워크는 약 1만 1천3백 개의 초고속 충전 케이블을 추가했고, Paren은 올해도 작년보다 약간 더 충전기를 늘릴 것으로 보인다.

More Chargers, Much More Cars

EV adoption has outpaced the construction of public, fast-charging cords

■ US EVs per cord



Source: Alternative Fuels Data Center, Cox Automotive, Needham & Co LL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The 14 worst-paying college majors, 5 years after graduation

미 대학 졸업 후 연봉 낮은 전공 리스트

22세부터 27세 사이의 대학 졸업 직후 젊은이들이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전공은 아래와 같다.

- Theology and religion: \$41,600
- Social services: \$43,000
- Performing arts: \$44,000
- General education: \$45,000
- Early childhood education: \$45,000
- Elementary education: \$45,000
- Liberal arts: \$45,000
- Biology: \$45,000
- Leisure and hospitality: \$45,000
- Psychology: \$45,000
- Anthropology: \$45,000
- Art history: \$45,000
- Fine arts: \$45,000

기사

WSJ: Target Accelerates In-Store Investments as Part of Turnaround Strategy

Target, 정상화 전략으로 매출 투자 확대

- Target은 올해 30개 이상의 매장을 새로 열고 130개 이상 매장을 리모델링해 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매출과 이익이 감소한 가운데, 신임 CEO 취임 후 약 6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 또 20개 이상 대도시 지역에서 내일부터 추가로 '다음날 배송'(next-day delivery)을 시작해, 전체적으로 미국 인구의 60% 이상이 지역에 서비스를 하게 되는 셈이다.

기사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